20일 Market Index
코스피 3814.69 (+65.80) | 코스닥 875.77 (+16.23)
금리(국고채3년) 2.569 (+0.014) | 환율(원·달러) 1421.65 (+0.45)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OLED·폴더블폰 이어 원전까지 넘본다

中 '캐파' 공세에 韓 제조산업 휘청

〈생산능력〉

원가경쟁력으로 보급형 장악
OLED 출하량, 한국 넘어서
글로벌 폴더블 점유율 57%
SMR 상용화로 원전도 추격

세계 시장을 휩쓸던 한국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이 중국의 매서운 추격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스마트폰과 TV·패널 등의 제품에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으로 보급형 시장을 장악하며 K-가전 업체들의 점유율을 추격해오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기술력은 우위에 있지만 중국이 양산(캐파) 경쟁력을 앞세워 대대적 공세를 펴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대표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은 5개월 연속 중국에 밀리고 있으며 TV 등 대형 OLED 분야까지 주도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8월 기준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월간 출하량은 중국 3930만 대, 한국 3850만 대로 나타났다. 8월 기준 스마트폰 OLED 출하량에서 중국이 한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중국 기업들은 TV 등 대형 패널 시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LCD 등 저가 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그 수익을 OLED에 재투자하면서 추격에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은 2023년 73.6%에서 지난해 67.2%로, 6.4%포인트(p)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25.7%에서 33.3%로, 7.6%p 오르면서 점유율 격차를 좁혔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의 상승세가 매섭다. 올 상반기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57%를 기록했다. 특히 화웨이가 신제품 출시 효과를 바탕으로 판매량을 빠르게 늘렸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와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속화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 기술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형 원전을 개발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육상 상업용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세계 최초의 육상 상업용 SMR의 내년 정식 가동을 앞두고 시운전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SMR는 대형 원전(1000MW)에 비해 낮은 300MW의 전기 출력을 갖췄지만 반경 200~300m 정도의 공간만 확보하면 산업단지는 물론 도시 외곽 등에도 건설할 수 있다.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대형 원전 대비 최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80여 종의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상용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진행중이다.

삼정KPMG와 한국원자력협력재단에 따르면 SMR는 2030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미국 등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3000억달러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社 告

메트로경제 '2025 제약·바이오 포럼'

K바이오 패러다임의 변화 독자적 기술로 혁신 주도

차세대 바이오 혁신을 이끌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오는 10월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5 제약·바이오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K바이오 혁신:독자기술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차세대 혁신 기술들을 소개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보유한 인벤티지랩과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보유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각자의 독자적 기술을 소개하고,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망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기지속형 약물전달 플랫폼의 임상적·산업적 가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주목을 받는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개발 ▲국정과제로의 동물대체시험법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연구자와 기업, 그리고 일반 청중에게 혁신 기술과 산업 전망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 제 :** K바이오 혁신: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 시 :** 2025년 10월22일(수) 오후2~5시
-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및 참가신청 :** 2025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forum@metroseou.co.kr

metro

대한항공은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서 무인기 3종을 최초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무인기는 저피탐 무인편대기(LOWUS) 시제기, 중형 타격 무인기(Loitering Munition) 시제기, 소형 협동 무인기(KUS-FX) 목업(mock-up·실제 크기 모형)이다. 사진은 대한항공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 /뉴시스

李 "2030년까지 국방·우주 R&D 예산 대폭 확대"

서울 ADEX 2025 개막
민간 주도 방산 전환 가속화
'AI·무인화' 중심 기술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 도약'을 선언하면서 국방개혁의 기수를 직접 잡았다. 정부의 대규모 R&D 투자가 본격화되고 민간 중심의 방산생태계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서울 ADEX 2025 현장은 '정책과 산업의 교차점'으로 자리잡았다. 〈관련기사 4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에 예산을 뛰어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방위산업으로 구조를 바꾸겠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방위산업·우주항공 정책이 상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다.

이에 발 맞춰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은 국산 무기체계와 AI 기반 전투기술을 대거 선보이면서 K-방산의 방향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과시했다. 특히 올해 전시장에서는 'AI·무인화'를 중점적으로 기술을 공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반도 작전 환경에 맞춘 한국형 차세대 보병전투차량(K-NIFV) 실물과 저피탐 무인기용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감시·정찰·타격이 통합된 배회형 정밀유도무기(LPGW)를 공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차세대 고속 중형헬기 모형(틸트로터형)과 차세대전투체계(NACS)를 공개했다.

AI가 지휘관의 명령을 분석해 무인기와 전투기, 편대를 동시에 운용하는 미래형 전장 체계를 제시했다. 〈4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코스피 사상 첫 3800 돌파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
사천피 185.31포인트 남아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돌파했다. 지난 14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한·미 관세협상 기대와 한·중 무역갈등 완화 가능성 등이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증시를 밀어 올렸다. 여기에 반도체 '수퍼사이클(초호황기)' 전망이 주가를 밀어 올렸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서 증시로 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4.86%만 더 오르면 달성할 수 있는 '코스피 4000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76% 상승한 3814.69로 장을 마치며 사상 처음으로 3800 고지에 올랐다. 이틀 만에 장 중 및 종가 기준 최고점을 갈아치운 것이기도 하다. 코스피 4000까지는 185.31포인트(4.86%)를 남겨뒀다.

이날 주가 상승의 일등 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대중 100% 관세'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투자자들은 이를 미·중 무역 갈등 완화로 받아들였다.

한·미 무역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전망도 코스피 랠리에 힘을 보탰다.

지수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종목은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이들 주가는 각각 9만8100(+0.20%), 48만5500(+4.30%)까지 상승했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메트로 한줄뉴스

/사진 뉴시스

▲李대통령 "국방이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
▲李대통령 지지율 52.2%로 1.3%p↓… "관세협상·예능출연 영향"
▲정부, APEC 임박 24일부터 전국 테러경보 '관심'→'주의' 격상
▲정부 "태국매체가 金총리 캄보디아 발언 허위보도… 강력 대응"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 재판소원제 공론화 시동
▲나토 사무차장 "한국과 방산 포함 실질적 협력 강화할 것"